

투데이 칼럼

개성공단 가동 문제

급 강산의 우리 자산인 해금강 호텔이 완전히 해체됐고 금강산 호텔 등 북측 자산도 철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에 대한 북한의 불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엄중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실현성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 4월 말 활용한 개성 공단 위성시민에는 건물 앞과 공터 등 곳곳에서 버스와 인파, 차재 등이 눈에 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대략 21곳에서 이런 모습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10여 개의 공장을 불법 가동 중인 것으로 파악했다. 우리 기업 자산의 무단 사용은 남북 합의서와 개성공단지구법 위반이다.

통일부는 대북 성명을 통해 “북한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국제사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했다.

북한이 우리 기업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정황은 이전부터 포착됐다. 앞서 미국 위성업체가 개성공단을 열적위선 위성으로 활용했는데, 섬유와 전자, 전기밥솥 등의 공장이 활발히 가동 중인 것으로 추정됐다.

개성공단의 통근버스가 평양과 개



정복규
논설위원

성 시내를 누비는 모습을 관영 매체가 버젓이 공개하기도 했다. 또, 이 산가족 상봉 역사를 담은 해금강 호텔의 하층 지지대마저 완전 철거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중앙TV는 지난 2019년 10월 “김정은 위원장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쓱 들어내도록 했다.”고 전했다.

15년 전 우리 선수들이 북한 땅에서 첫 대회를 치렀던 골프장 속소동을 비롯해 금강산 은정각, 고성향 헌법 등 우리 기업의 건물들이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북한은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조금 벗어나려고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중국과도 무역이나 교류를 좀 더 활발히 해야 된다. 금강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중국 관광객들을 모집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있었다.

향후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시설을 활용,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한국 자신에 재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 책임을 물고 배상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남북 모두 대화는 끊고 군사력 증강에 나선 현 상황에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어디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남북한의 여러 합의서가 존재하지만 일종의 신의의 원칙에 기반을 한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쪽에서 들어가 그런 시설들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대규모의 시설을 가져오려면 대형 트럭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나 이는 안보리 제재에 저촉이 된다.

남북 관계 측면에서 그렇고 국제적인 측면에서도 미망한 방법을 찾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3국은 북한

미시밀 정보 공유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한미가 새로 합의한 NCG, 즉 핵협의 그룹에 일본이 참여할지도 주목된다. 중국은 사드 문제까지 다시 거론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달 북한은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을 처음 발사했다.

1단은 정상 각도로 비행했지만, 2단

과 3단은 각도를 높인 고각 발사다.

미시밀 궤도 추적에 실패한 일본은

홋카이도에 대피령을 발령했다가 20

분 만에 취소했다.

이 같은 혼선을 피하고 북핵 대응

력을 높이기 위해 한미일은 미시밀

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를 논의하

고 있다. 군사동맹이 아닌 한국과

일본은 서로의 데이터 시스템을 연

결할 수 없다.

따라서 2014년 체결한 한미일 정보

공유협정, TISA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미 국방부를 매개로 한일 군 당국

이 북한 미시밀 정보를 공유하는 방

식이다. 하지만 결국 미국의 미시밀

방어 체계, MD 참여로 이어지면서

현재의 신냉전 대결 구도를 강화

할 거란 우려가 나온다.

중국은 한미일의 움직임이 아시아

판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출현

으로 이어질까 경계하고 나섰다. 중

국은 사드 3불을 다시 거론하며 한

국을 압박했다.

사설

새만금 특화단지와 이차전지

이차전지 산업의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는 올 들어 1조 원대 한·중 합작투자가 잇따라 성사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이차전지 분야 기업들의 투자 유치 실적만 약 5조 2천억 원이다.

이 가운데 약 4조 원, 거의 대부분의 성과가 지난해부터 나온 것들이다. 최근 관련 산업이 폭발적인 성장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차전지 관련 기술을 미래 먹거리로 보고 국가전략기술로 선정 했다.

현재는 공장 입지에서 사업화 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을 위해 이차전지 기업들을 한데 모으는 ‘특화단지’ 부지를 물색 중이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보유한 전라북도도 도전장을 냈다.

수요가 큰 시장이라서 기업들이 다급히 큰 규모의 공장 부지를 원하고 있다. 기업들이 원하는 규모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새만금이 유일하다. 다쓰고 난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이차전지 소재를 공급할 예전 도 마련돼 있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기반 발전 단지를 조성해 기업들의 RE100 수요를 충족해줄 수 있다.

전북도는 대규모 투자로 지역균형 발전까지 도모할 수 있다며 지정의 당위성을 다각

도로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포항과 울산광역시 등 주요 산업도시들이 유치 의향을 보이며 전국 5개 지자체가 특화 단지 생활전에 나설 예정이다.

이미 이차전지 기업을 유치해 가동에 들어간 곳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전국에 1곳 이상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명확히 정해진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지역 안배 논리가 작용하게 될지도 관심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첨단전자산업위원회는 관심 지자체의 특화단지 계획을 청취하는 일정을 시작으로 심사에 돌입한다.

먼저 애초에 특화단지 부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9개국을 방문했고 34번의 양자회담과 12번의 다자회담에 참석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은 1년 동안 총 3차례 열렸다. 진전된 확장역제 강화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도 발표했다.

12년 만에 서클외교를 복원하며 한일 관계 개선의 물꼬도 뚫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한미 확장역제와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실행력을 대폭 키우기로 한 점은 성과로 꼽힌다.

하지만 미국 쪽으로 완전히 기울면서 한미, 한일 관계 강화에 힘을 쏟아 부었고 중국, 러시아와는 소원해졌다. 대통령은 외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가능성을 내

비쳤다.

이에 러시아는 한국을 적대국 가로 놓 박았다. 그리고 타이완 문제를 거론하자 중국은 “불장난하면 불에 타 죽는다”며 경악된 반응을 보였다.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 가능성에 급격히 사라졌다.

경제 안보와 관련돼 있는 배터리 문제나 반도체 문제들에

서도 중국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다.

한 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남북 간 대화는 2018년 12월 이후 4년 넘게 단절됐고, 북한은 통신연락선마저 모두 끊었다.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을 제시 했지만, 공허한 구상이 됐다.

남은 일기 4년 역시 지난 1년

처럼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를 1순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관리와

해결 대신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의 협예한 대결의 또 다른 무대가 될 수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인간사슬 형성한 G7 정상회의 반대 시위대



지난 19일 일본 서부 히로시마의 한 거리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인간사슬을 형성한 채 행진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깃발 흔드는 반이스라엘 시위대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지난 18일(현지시각) 가자지구 동예루살렘 팔레스타인 구시가지를 통과하는 이스라엘인들의 기념 행진에 반대하며 팔레스타인 깃발을 흔들고 있다. 이스라엘은 1967년 중동 전쟁에서 동예루살렘을 점령한 ‘예루살렘의 날’을 기념해 국기 행진을 펼쳤으며 팔레스타인은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의 영원한 수도”라며 이스라엘의 이번 행진을 비난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빼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